

2007년 등급판정결과 소 부문 우수상

자영농장 - 이근범 농가

충북지역본부 음성출장소장 강인수



자영농장 이근범 대표

2007년도 등급판정결과 소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충북 음성의 자영농장 대표 이근범 사장은 42세의 젊은 농군으로 한우사육을 시작한지 이제 15년 세월이 흘렀다. 현재 이근범 사장은 충청북도주최 고급육경진대회에서 올해까지 세번째 입상(최우수상)을 하고 있다. 이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농장으로 고급육생산의 비결을 배우러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근범 사장 또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발품을 팔며 배우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녀야 했다. 1992년초 처음 후계자자금을 받고 육우사육을 시작해 1996년도에는 한우 고급육에 꿈을 갖고 1998년부터 전 두수 거세로 고급육사육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사양관리

현재 사육규모는 190두 규모로 번식우 60두, 육성우 10두, 비육우(거세우) 120두이고 사육형태는 송아지 생산에서 비육까지 일괄 경영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이근범 사장은 번식우사를 2003년 충북농업기술원과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번식우 전용 분만사를 신축해 폐사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렸으며 거세우사는 스텐존을 설치하여 개체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해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에 따른 제한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번식우는 철저한 개체별 기록관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액을 선정 할 경우에도 담당 수의사 및 음성축협 지도계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는 한우를 사양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비육밀소를 구입시 반드시 부모가 확인되는 등록우를 구입하고 등급판정결과를 어미소농가에 제공해 송아지생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의 사양방법은 송아지 때부터 맑은 물과 건초 급여하고 매주 축사 및 축사 주변을 2회 소독, 구충과 호흡기질병에 대한 백신을 처리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번식우의 경우는 수태율 향상을 위해 비타민제를 별도로 급여하고 있다. 육성우일 때는 비육중 송아지사료(가루사료)를 1일 2회 제한급여하고 생균제를 함께 급여하고 있다. 조사료는 거세전에는 무제한 급여하고 육성기에는 알팔파베일을 1일 1회 급여하고 볶짚은 무제한 급여하고 있다. 비육기간은 생후 13개월령, 생체중 350kg에 대략 시작하고 있으며 비육전기의 사양관리로서 농후사료는 22개월령까지 제한급여, 볶짚 무제한급여, 여기서 비타민C와 생균제를 같이 급여하고 있다.

비육후기에 들어가면 볶짚은 제한급여를 하고 농후사료는 무제한급여를 하며 생균제 및 보리를 첨가하여 급여한다. 출하일령은 대략 30개월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근범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한우만의 특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안전한 위생으로 승부를 건다면 얼마든지 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차 나의 꿈은 번식우 100규모의 안정된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해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고 싶다. 또한 한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